

이재명 “농업, 전략 안보 산업으로” 전남서 민심 행보

27·28일 ‘호남 경청투어’... 여수 산단 방문·장흥서 농어민 간담회 오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예방 뒤 현장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남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과 광주를 잇달아 방문, 호남 민심을 결집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여수산단 입구 산단혁신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산단 기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을 장소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슬프고 안타깝다”며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어떤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찾고,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방문한 이대표는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점검한 뒤,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핵심기지로 앞으로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장흥 지역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한 이대표는 “정부에서 (농업을)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일부에서 이를 자유경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성을 비판했다. 또 “등유나 가스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기요금을 최근에 올리고 앞으로 35% 더 올릴 것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저희가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큰 노력을 했으나 법사위에서 막힌 상태”라며 “세상이 다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농업 분야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전략 안보 산업으로 튼튼히 자리매김 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어민 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뒤 “겨울이 깊지만, 곧 봄이 오지 않겠다”라며 “겨울에는 봄을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

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대표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협하는 북측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힌 뒤, “정부의 국방·안보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유능한 대책과 대비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대표는 이날 저녁 무안군 남악주민센터에서 전국 순회 제3탄 ‘전남지역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또 28일 오전에는 광주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대표가 전남 민생 투어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말을 아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에서 열리는 최고위위원회에서 여권과 검찰을 맹비난하는 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바탕으로 사법리스크를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표의 검찰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위원회에서 이대표는 멋있게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말했다”며 “점심까지 결론을 못 냈었는데 오후 6시가 다 돼 대표가 (출석)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이대표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명 ‘호남 경청투어’ 장흥 방문 27일 농업현장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장흥 금송영농조합법인 시설원에(파프리카) 재배 현장을 둘러보며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른 농가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17년 남은 ‘MB’ 사면·복권...5개월 남은 김경수 ‘사면’만

정부, 1373명 신년 특별사면 국정 농단·뇌물 정치인 등 대거 복권 강운태 전 시장·황이식 전 화순군수도

황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황이식 전 화순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등도 복권됐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

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른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운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 등,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참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밖에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육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오광록 기자 kroh@

“윤허정치 그만...일몰법 일괄타결하자”

박홍근 민주 원내대표 “여야 합의해도 대통령 반대하면 휴짓조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의 ‘윤허’ 언급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종 현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만 바라본다고 비판해온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각 상임위에서 여야 입장차가 팽팽해 전망이 어두워지자 ‘일괄 협상’을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어제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땀집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北 무인기 영공 침범, 尹 정부 대응 실패”

김성환 민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

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력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주의원은 “육군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부터 시작해 천공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NSC를 안 열면) 과연 언제 소집할 것인가”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한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전원주택 (1채) → 8,000만</p>	<p>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p>	<p>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p>																
<p>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p> <p>(장성댐 5분) (등산로 있음) (6M도로 접)</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td> <td>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td> <td>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td> </tr> <tr> <td>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td> <td>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td> </tr> <tr> <td>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td> <td>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td> </tr> <tr> <td>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td> <td>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td> </tr> <tr> <td>북구우산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td> </tr> <tr> <td>서구화정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td> </tr> <tr> <td>북구윤임동 (아파트)박산블루 ▶</td> <td>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윤임동 (아파트)박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윤임동 (아파트)박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p>010-6670-9800</p>	<p>010-2614-9801</p>																	